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구강악습관과의 연관성에 관한 융합 연구

감지영¹, 윤지혜², 임근옥^{3*}

¹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²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³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Oral Habits in College Students

Kam ji Young¹, Ji-Hye Yun², Lim kun Ok^{3*}

¹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nMoon University

²Researche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³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and Genome-based BioIT Convergence Institute, SunMoon University

요 약 일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주요인을 파악하고 구강악습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련문항과 악습관 관련문항으로 나누어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 별 항목을 융합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 원인 중 건강·대인관계는 구강악습관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스트레스로 인한 구강악습관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생들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스트레스 자가 인식법, 조절법 및 악습관 개선에 관한 교육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대학생, 스트레스, 구강악습관, 융합 연구, 취업

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the major stressors of some college studen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ral habi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299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Sunmoon University located in Asan-si, Chungcheongnam-do.

As a result convergence study of analyzing stress by college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the causes of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bove studies, the incidence of oral habits caused by the stress of college students was very high. Considering that the stress factors that occur during college life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it is necessary to have an education framework on improving stress self-recognition, control, and bad habits.

Key Words : College student, Stress, Oral habits, Convergence Study, Employment

*Corresponding Author : Lim kun Ok(kolim139@sunmoon.ac.kr)

Received October 12,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11,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스트레스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및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떠한 불일치가 올 경우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개인의 정서, 행동, 생리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1].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존재할 수 있고 그 정도도 다양하다.

그 중 진로와 취업준비에 극면한 대학생들의 경우 일부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경험 중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은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2]. 그 이유는 대학에서의 전공분야의 학부생활, 또래간의 경쟁,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준비 등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3].

1973년 Thomas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두경부 근긴장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고 나아가 이같이 습관, 이악물기 습관 등과 같은 구강 내 악습관을 야기시킨다고 하였다[4]. 또한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선택한다고 하였고[5], 스트레스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나쁜 자세를 취하는 등 구강악습관이 생겨 지속된 안면근육 긴장으로 턱관절 질환이 더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6]. 다른 선행연구[7].에서도 스트레스가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2017조사된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대학생을 포함한 20대의 스트레스 정도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8],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교수와의 관계소통 만족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주요인인 과악하고, 스트레스가 구강악습관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도 4월3일부터 4월10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선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자기기입

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배부한 300부 중 응답이 부실한 1부를 제외한 299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지는 Seo 등[10]이 측정한 도구를 참고하여 요인 선정과 세부질문을 재수정 하였고 도구의 신뢰도검사를 수행하였다.

2.2.1 일반적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변수는 성별(남,여), 연령, 소속(인문사회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신학순결대학, 건강보건대학, 스마트기술공과대학), 주 수입원(용돈, 아르바이트, 기타), 흡연유무(예,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아니오), 음주여부, 턱관절 외상 유무(예, 아니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원인 별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련 문항으로는 학업에 관한 설문문항, 취업에 관한 설문문항, 가정에 관한 설문문항, 건강에 관한 설문문항, 대인관계에 관련된 설문문항 등으로 각 5문항씩 25문항이다. 총 25점부터 125점까지이며, 스트레스의 지수가 매우 심한 경우부터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경우까지 차등으로 5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수정도가 심한 것으로 하였다. 본 도구의 Cronbach' α 는 0.886이었다.

2.2.3 구강악습관

구강악습관의 문항구성은 손톱 또는 물건을 깨무는 습관이 있음, 껌을 자주 씹음, 딱딱한 음식을 자주 즐겨 먹음, 음식을 한쪽으로 씹음, 손이나 물건으로 턱을 꺾음, 평소에 이를 악무는 버릇이 있음, 수면 시 이를 감, 평소에 이를 감, 혀나 뺨,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있음, 턱을 앞으로 내미는 버릇이 있음, 혀로 치아를 밀거나 내미는 습관이 있음, 수면 시 주로 한쪽으로 누워 잠, 핸드폰을 한쪽으로 끼고 통화하는 버릇이 있음, 아랫니와 윗니를 딱딱 치는 습관이 있음 등의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악습관의 빈도가 매우 심한 경우부터 전혀 없는 경우를 차등으로 5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구성하였다. 총 점수는 14점에서 70점까지이며, 여기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악습관정도가 심한 것으로 하였다. 본 도구의 Cronbach' α 는 0.826이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SPSS 22.0 K for window,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외상은 t-test를 실시하였고 전공계열, 흡연, 음주가 구강악습관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학업, 취업, 가정, 건강, 대인관계 (스트레스 원인)가 구강악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성이 149명(49.8%), 여성이 150(50.0%)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8세가 41명(13.7%), 19세가 41명(13.7%), 20세가 65명(21.7%), 21세가 72명(24.1%), 22세가 40명(13.4%), 23세가 25명(8.4%), 24세가 8명(2.7%), 25세가 6명(2.0%), 26세가 1명(0.3%)로 나타났다. 소속 단과 대학은 인문사회대학이 49명(16.4%),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이 62명(20.7%), 신학순결대학이 10명(3.3%), 건강보건의대학이 107명(35.8%), 스마트기술공과대학이 71명(23.7%)로 나타났다. 수입원을 묻는 문항에서는 용돈을 받는 경우가 194명(64.9%),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93명(31.1%), 그 외에 경우가 12명(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흡연자가 54명(18.1%), 비흡연자가 209명(69.9%), 과거에는 피웠으나 금연하는 사람이 36명(12.0%)로 나타났다. 음주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 39명(13.0%), 월 1회 이하가 51명(17.1%), 월 1회가 76명(25.4%), 1주일에 2~3회가 119명(39.8%), 1주일에 4회 이상이 14명(4.7%)로 나타났다. 턱관절에 외상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는 외상 있음이 11명(3.7%), 외상없음이 288명(96.3%)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99)

Variables		N	%
Gender	Male	149	49.8
	Female	150	50.0
Age	18	41	13.7
	19	41	13.7
	20	65	21.7
	21	72	24.1
	22	40	13.4
	23	25	8.4
	24	8	2.7

	25	6	2.0
	26	1	0.3
major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9	16.4
	Global Business College	62	20.7
	College of Theology	10	3.3
	Health and Health College	107	35.8
	Smart Institute of Technology	71	23.7
Income	allowance	194	64.9
	part-time job	93	31.1
	Non-professional income	12	4.0
Smoking state	Yes	54	18.1
	No	209	69.9
	Past smoker	36	12.0
Drinking	Do not drink at all	39	13.0
	Less than once a month	51	17.1
	Once a month	76	25.4
	2-3 times a week	119	39.8
	4 or more times a week	14	4.7
Extrinsic trauma	Yes	11	3.7
	No	288	96.3

3.2 구강악습관

구강 악습관 정도에는 Table 2와 같이 ‘손톱이나 물건을 치아로 깨무는 습관이 있다(2.09점)’, ‘껌을 자주 씹는다(2.03점)’, ‘딱딱한 음식을 자주 즐겨 먹는다(2.23점)’,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다(2.61점)’, ‘손이나 물건으로 턱을 꺾는다(3.06점)’, ‘평소에 이를 악무는(세계 무는) 버릇이 있다(2.18점)’, ‘수면 시 이를 간다(1.75점)’, ‘평소에 이를 간다(1.51점)’, ‘혀나 뺨, 입술을 깨문다(2.29점)’, ‘턱을 앞으로 내미는 버릇이 있다(1.77점)’, ‘혀로 치아를 밀거나, 내미는 습관이 있다(1.88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수면 시 주로 한쪽으로 누워 잔다(3.00점)’, ‘핸드폰을 한쪽 어깨와 목 사이에 끼우고 전화 통화하는 버릇이 있다(2.22점)’, ‘아랫니와 윗니를 딱딱치는 습관이 있다(1.7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Bad oral habits

Bad oral habits Questionnaire	M±SD
1. There is a habit of biting nails or things.	2.09±1.26
2. Chew gum often.	2.03±1.03
3. I often eat hard foods.	2.23±1.03
4. Chew food on one side only.	2.61±1.13
5. I jaw it with my hand or something.	3.06±1.18
6. There is usually a habit of biting it hard.	2.18±1.07
7. Bruxism During Sleep	1.75±0.98
8. Do Bruxism as usual	1.51±0.78
9. Bites the tongue, cheeks, or lips.	2.29±1.20
10. There is a habit of pushing the chin forward.	1.77±0.92
11. There is a habit of pushing or pushing the teeth with the tongue.	1.88±0.98
12. When sleeping, you usually lie on one side.	3.00±1.30
13. I have a habit of holding my cell phone to one side and talking on the phone.	2.22±1.10
14. The habit of bumping the upper teeth and lower teeth	1.72±0.91

3.3 스트레스 원인 항목에 따른 구강악습관과의 관계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구강 악습관에 대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지각된 스트레스 중 건강(p=0.000), 대인관계(p=0.000)로 인한 스트레스가 구강 악습관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또한 Table 4와 같이 구강악습관이 좋지 않은 균일수록 대인관계와의 스트레스가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구강악습관에 스트레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Oral and Evil Habits according to Stress Causes

	B	SE	t	p	VIF
Academic	.221	.170	1.303	.194	1.99
Employment	.077	.159	.485	.628	2.11
Home	.087	.057	1.513	.131	1.15
Health	.673	.132	5.099	<.001***	1.31
Human relationship	.642	.146	4.393	<.001***	1.44

*p<.05, **p<.01, ***p<.001

Table 4.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Oral and Evil Habits and Stress Factors

	OR (95% CI)	p
Model 1. Moderate oral habits		
Academic stress	1.06 (0.94 - 1.20)	.325
Employment stress	1.07 (0.95 - 1.20)	.249
Home stress	0.96 (0.91 - 1.02)	.167
Health stress	1.08 (0.98 - 1.18)	.127
Human relationship stress	1.21 (1.09 - 1.35)	.001**
Model 2. High oral habits		
Academic stress	1.04 (0.83 - 1.30)	.740
Employment stress	1.36 (1.07 - 1.72)	.011*
Home stress	0.92 (0.83 - 1.03)	.145
Health stress	1.41 (1.15 - 1.72)	.001**
Human relationship stress	1.40 (1.12 - 1.75)	.003**

*p<0.05, **p<0.01, ***p<0.001

Note: All model wa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drinking, trauma. Reference category of the dependent variable is Low oral habits.

4. 고찰

대학 시기는 사회생활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시기로 자아정체감, 사회 가치관이 확립되는 중대한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와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수행하게 된다[11]. 치열하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까지 대학생활에서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많은 준비를 수행해야하는 과정이므로 이 시기에서 경험하는 걱정수준의 스트레스는 정신건강과 적응에 적절한 자극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는 불안한 미래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부담감의 무게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이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만약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다루어 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악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등의 심리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에 관련된 학습활동성이 저하되어 성적 하락 및 인간관계 등에 문제가 발생하며 나아가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15].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삶에 활력을 높여주고 진취적인 행동변화를 가져다주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서불안과 인간관계의 악영향 등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16] 따라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해서는 안되지만 스스로 자각하고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생활 중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여러 증상 중 구강내과 영역에해당하는 악습관 발생과 턱관절기능장애가 있다. 미국구강안면통증학회(AAOP)에 의하면 구강악습관에는 손톱 깨물기, 껌 씹기, 편위성 연하, 이 갈이, 이 악물기, 턱을 전방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다고 하였고, 턱관절 장애의 주된 원인이 구강 악습관이라고 하였으며[17], 이는 낮과 야간 시간대로 나뉘어 이 악물기, 이갈이, 혀깨물기, 손가락 빨기가 있으며, 이런 악습관이 지속 될수록 근조직 내 정상적 혈류흐름을 방해하고 근피로, 근통증, 근경련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18]. 즉 악습관과 같은 기여요인들이 차후 나아가 다른 증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스트레스는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구실이 된다[19]. 이러한 악습관 및 악관절장애의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의 결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됨을 밝힌 정신생리학설이 유력해졌다[20-22].

따라서 효율적인 대학생활과 예비된 사회생활을 위해 학부과정 중 스스로 자각하여 스트레스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대로 발현증상 중 하나인 악습관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 교정하는 자세와 습관이 필요할 것이며,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충남지역에 국한된 일부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편의표본 추출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좀 더 포괄적인 역학조사를 통하여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한 구강악습관을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구강악습관과 더 나아가 턱관절기능장애를 체계적으로 예방치료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인 학업, 취업, 건강, 대인관계, 가정에서의 주요인을 파악한 후 스트레스와 구강악습관의 관계 및 턱관절기능장애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구강악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습관으로는 ‘손이나 물건으로 턱을 꾀다.’(3.06점)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 별 스트레스를 빈도 분석 한 결과 가정에 관한 스트레스(13.6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 중 외상이 있는 사람은 턱관절 기능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적 특성 중 읍주횟수를 구강악습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스트레스 원인인 학업, 취업, 가정, 건강, 대인관계는 턱관절 기능장애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스트레스 원인 중 건강, 대인관계는 구강악습관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은 구강악습관과 턱관절 기능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 측정도구가 다를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스트레스로 인한 구강악습관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생활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스트레스 자가 인식법, 조절법 및 악습관 개선에 관한 교육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H. Choi. (1986). *Str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ognitive behavioral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 R. Eckersley. (2005). *Well. & Good : Morality, meaning and happiness*. Melbourne : The Text publishing Company.

[3] E. H. Lee.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1), 25-52.

[4] L. J. Thomas, N. Tiber & S. Schireson. (1973). The effects of anxiety and frustration on muscular tension related to the temporomandibular joint syndrome. *Oral Surgery,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36(5), 763-768.

[5] Y. G. Lee. (2018). Relationship between Self-management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 Society*, 9(1), 161-169. DOI : 10.15207/JKCS.2018.9.1.161

[6] S. K. Kim et al. (2017). Subjective symptoms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 and related factors. *J Korean Soc Dent Hyg*, 17(4), 589-600. DOI : 10.13065/JKSDH.2017.17.04.589

[7] J. E. Kim et al. (2018). Influence of stress on the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8(5), 797-806.

[8] Statistical Office. (2017).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Statistical Information Report*. Daejeon : Statistical Office.

[9] Y. J. Jung. (2019). Self-esteem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ffect the Stress of College Student. *AJMAHS*, 9(8), 707-714. DOI : 10.35873/AJMAHS.2019.981.063

[10] E. Seo, S. D. Kim, J. Y. Lee, J. S. Lim. (2012).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risk factors in office workers, service workers, and teachers. *J Korean Soc Dent Hyg*, 12, 563-576.

[11] J. Park. (2011). *Stress, Stress res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Namwon.

[12] M. S. Chu, Y. R. Lee & S. H. Kim. (2012). Nursing students' stress level, source and cop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19(2), 195-203.

[13] L. Magnussen & M. J. Amundson. (2003).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xperience. *Nursing & health sciences*, 5(4), 261-267.

[14] E. Jung. (2017. 5. 7). *The first place stressing the opening of uni v ersity students is homework*. JoongAngIlbo [Online]. <http://news.joins.com/article/21450826>

[15] G. S. Han. (2011).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of oral malodor and smoking, drinking, oral health behavior.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3), 213-220.

[16] M. E. Kim. (2010). A study on TMD and stress of first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4), 683-693

- [17] S. Jung. (1989). Standard of care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J Oral Med Pain*, 1(1), 37-60.
- [18] S. J. Kim. (2004). *The effect of occlusal factors on temporomandibular disorde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9] J. H. Lee, E. J. Park & J. M. Choi. (2009). Research on occupational stress of the some local workers and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9(1), 9-15.
- [20] P. Toller. (1976). Non-surgical treatment of dysfunction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Oral Sci Rev*, 7, 70-85.
- [21] R. Yemm. (1985). A neurophysiological approach to the pathology and aetiology of temporomandibular dysfunction.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12(4), 343-353.
- [22] W. E. Bell. (1989). *Orofacial pains. classification, diagnosis and management*. Chicago : Year Book Medical Publishers.

감 지 영(Kam-ji young)

장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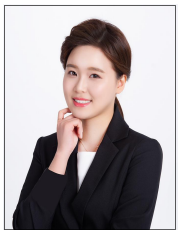


- 2012년 5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석사)
- 2015년 8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박사수료)
- 2012년 9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치과임상학, 예방치의학

· E-Mail : gamjigamji@naver.com

윤 지 혜(Ji-Hye Yun)

장학원



- 2007년 2월 : 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학사)
- 2017년 8월 :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위생관리학과(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 건강노화외과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노인구강학

· E-Mail : dream10307@naverr.com

임 근 옥(Kun-Ok Lim)

장학원



- 2004년 8월 : 원광대학교 구강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

임상학

· E-Mail : kolim139@sunmoon.ac.kr